

## “동·서양 악기 어우러지듯 이웃의 행복 연주했으면”

[ 니르바나필하모닉오케스트라 후원회장 오시환 ]



마흔여덟에 식칼을 든 남자. 광고기획자 출신의 늦깎이 요리사, 해산물 요리 전문점 '해장집' 사장... 오시환(54세) 앞에 붙는 다양한 수식어들이다. 하지만 불교계에서는 이제 니르바나필하모닉오케스트라(이하 니르바나) 후원회장으로 통한다.

니르바나 공연이 있는 날이면 제일 먼저 그를 공연장 밖에서 만날 수 있다. 오 회장은 공연장 문 앞에서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콧수염과 은빛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팸플릿을 들고 관객들을 맞이한다.

그 뿐만이 아니다. 좌석을 몰라 우왕좌왕하는 이들에게 안내를 해주는 등 온갖 갖가지 일을 마다 않는다. 자신의 생업인 음식점 경영도 벅찬 그가 어떤 인연으로 니르바나와 만났을까?

2005년 5월, 불교계 유일한 클래식 연주단체인 니르바나는 창단 7년 만에 문을 닫아야 할 큰 위기를 맞는다. 자금 사정이 문제였다. 연주회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강행진 단장이 근근히 이끌던 니르바나의 재정은 이미 바닥 난 상태였다.

마지막 연주회라고 생각하며 호암아트홀서 불족음악회를 준비하던 강행진 니르바나 단장은 표가 예상대로 팔리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이때 지인 소개로 인연이 된 이가 바로 오시환 회장이다.

“연주회를 며칠 앞두고 강 단장이 ‘해장집’으로 찾아와 저를 잠깐 보자고 하더라구요. 그때 저는 ‘유니텔 부처님나라 불교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매월 1회씩 자원봉사하고 있는 안산 풍지정소년의 집 학생들을 서울로 초청해 놓은 상태라 그들을 대접할 음식을 한창 만들고 있었습니다. 짬을 내서 구석에 앉아 있던 강 단장의 표정을 힐끔 살펴보니 완전히 풀이 죽은 상태더군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오 회장은 즉석에서 100만원을 꺼내 표를 샀다. 거기서 머물지 않고 인연 있는 스님들과 후배들에게 전화를 걸어 600여 만

때문이다. 2005년 5월말 드디어 후원회 결성음악회를 ‘해장집’에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었다. 꺼져가던 니르바나의 불씨가 다시 지펴지는 순간이었다. 이후 7월 불교미술박물관 테마 연주회를 거쳐 11월 소아암 돕기 연주회까지 오 회장의 뛰어난 기획 능력은 음악회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큰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런 비범함을 안 후원회 임원들은 급기야 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12월 제2대 회장으로 그를 추대했다.

“책임이 무거웠지만 저는 두 가지 조건만 충족된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국악과 서양악기가 잘 조화된 니르바나만의 독특한 컬러를 만들고 싶습니다. 둘째는 클래식 자선 음악회 봉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요구했습니다.”

“없어질 것 같았던 니르바나는 지난 2년간 몸을 돌보지 않고 발로 뛴 오 회장의 꾸준한 노력으로 이제는 후원회원이 400명이나 될 정도로 성장했다. 특히 지난 11월 소아암 돕기 음악회에는 삼성전자, 동국제강, 금호아시아나 등 국내 우수 기업 10개 업체가 400여 만원의 후원을 해주기도 했다. 불교 음악계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음악회하고 남은 기금을 다시 12월 5일 헬레암협회와 생명나눔실천회에 기부했습니다. 돈으로 소아암 환자를 돕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음악을 통해 어려운 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더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회장은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낙천론자이다. 그동안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 잘라 말한다.

“어려울 때 어렵다고 느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어요. 바닥에 있더라도 냉정하게 해결점만 찾으면 반전이 됩니다. 니르바나의 좋은 취지를 많은 이들에게 발로 뛰어 알리는 것이 해결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광고를 많이 만들어 봤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만들면 좋은 인연(소비자들이 반드시 많이 찾을 것)만 확신이 들었어요. 니르바나 음악수준 많이 높아진 거 못 느끼세요?”

5년 전만 해도 대기업을 잘나가던 광고인이었던 오시환 회장. 불혹을 훌쩍 넘긴 나이



잡나가는 광고기획자에서 요리사로 변신해 성공한 오시환 니르바나필하모닉오케스트라 후원회장. 그는 더 현실감 있는 음악 연주 단체로 니르바나가 새롭게 탈바꿈하기 위해 선봉장에 나서 팔을 걷어 부치고 뛰고 있다고 밝힌다.

에 미국행을 결심, 플로리다의 초밥집과 뉴욕의 퓨전 레스토랑에서 쿡 헬퍼로 일하면서 3년간 결집로 요리를 배웠다. 귀국 후 ‘해장집’을 열고 화려한 광고장이에서 성공한 퓨전레스토랑 사장으로 변신한 오 회장은 니르바나를 통해 또 한 번 삶의 시계를 바꾸었다.

그런 그가 이제는 강행진 단장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니르바나를 바꾸려 한다. ▲붓다와 그 제자들을 주제로 한 뮤지컬 제작 준

비 ▲요가 명상 등을 통한 연주단원들 불교 포교 ▲니르바나 어린이 챔버 오케스트라 활성화 및 청소년 오케스트라 창단 ▲테마 연주회의 주제 및 자비 확대 ▲음악 템플스테이 활성화 ▲불교계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커뮤니티 결성 등이다.

언제든지 항상 떠날 준비를 하며 현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오시환 회장의 2008년 이 별쳐부터 기대된다.

글=김주원 기자, 사진=박재원 기자

### 불경 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역주, 포대화상항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목역주/흑단목역주  
크기 : 8mm×10mm×12mm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목역주/흑단목역주  
크기 : 8mm×10mm×12mm

흑단목역주 포대화상항로  
(대) 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품조각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는 사람과 만날 수 있는 미덕과 행복을 이룸을 이루어 주며 일에서 힘이 생겨져 나와 예술품에도 사용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양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입니다.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74 송영화

###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얇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 열침의 효능 금강약들 온열복대

온열복대의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발생기 전기용량 안정인증, LIG 배설보통 기입 전자파 장애실험,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시약형 의료기기 05-0626로 인증

후리에 차가만 해도 온열복대를 건강하게 하려면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 속도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속담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흥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냉기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들 온열복대는 속담(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배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치유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흥터 걱정 없이 자유롭다. 차가운배, 허리 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들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몸과 질병들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